

전주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

18일까지 시민 안전 편의 증진 · 비상 대응 의료 체계 확립 등 4대 분야...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기로 했다.

시는 4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 약 2주간 △시민 안전 편의 증진 △비상 대응 의료 체계 확립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홍보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로 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5일간 운영하여, 각 분

야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시민 불편 민원에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건소 응급진료 상황실 및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비상대응반을 운영함으로써 연휴 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및 담당기관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해 내수경기 활성화 진작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 추석

전 행정안전부 ·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불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 · 관 협력을 통한 지역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와 추석 명절 성수품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 현장 지도 점검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시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4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모인 물품과 성금 등을 전주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주를 방문하는 귀성 · 귀향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석 연휴 전주시 공공운영시설 개방 여부와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전주시 2024 추석연휴 통합정보 안내 누리집'(www.jonju.go.kr/chusook)도 운영한다.



추석을 앞두고 깔끔하게 정비된 전주효자추모공원 자연장지

추석 연휴 장사시설 특별 교통 대책 추진

전주시설공단, 전주효자추모공원 추석 당일 '일방통행' 등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올 추석 연휴 기간에 4만여 명의 성묘객이 전주효자추모공원을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전주시효자추모공원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묘원 안의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한다.

교통이 불가할 정도로 많은 차량이 추석 당일에 몰리기 때문이다.

공단은 진출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한편 도로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입간판과 홍보물을 비치해 차량의 일방통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공단 자체 인력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완산경찰서와 완산구청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20여 명의 교통통제 인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유언장 500면 등 총 900면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성묘 차량과 인파로 운구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추석 당일 승화원은 휴장한다.

봉안당과 봉안원은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운영하며, 자연장지는 상시 개방한다.

공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성묘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추석 연휴 기간 장사시설 특별운영계획'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나흘간 4만3000여 명의 성묘객이 묘원을 찾았다. 하루 평균 1만7500여 명이 다녀간 셈이다.

올 추석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묘원을 찾을 것으로 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친환경 성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묘원 내 '조화(造花)'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추석에도 많은 성묘객이 우리 장사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립요양병원 ·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운철)가 3일 전주시립요양병원과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 및 시설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운철 위원장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해당 시설을 찾아 시설 점검과 운영 상황, 향후 운영 방안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주시립요양병원에서는 민간 위탁 운영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와 함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위원장은 "전주시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요양시설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복지관 등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3일 전주시립요양병원과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 및 시설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옥기 기자

추석 맞아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나선다

전주시 덕진구, 가로환경 · 교통 분야 정비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한병삼)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주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덕진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시설과 모래내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가로환경 · 교통 분야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위해 2개팀 8개반의 단속반을 구성해 명절 대목을

맞아 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집중 단속하고, 도로 · 인도변 주변 환경을 정비해 보행과 교통흐름 방해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전주역과 고속 ·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또 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과 하천 등을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까지 6개 점검반 28명을 투입해 공원과 녹지, 하천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제초와 예초 등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동시에 구는 공원 · 하천 내 안심벨과 CCTV 등 방범 시설물 작동 여부와 화장실 등 편의 시설물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수문과 제방 등 17개 하천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구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시야 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온고을로 등 주요 4개 노선의 가로화단에 대한 관목 가지치기를 실

시하고, 공원과 하천 산책로에 대해서는 제초 · 예초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끝으로 구는 추석 연휴 기간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과 하천 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1일 5명으로 구성된 민원처리반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명절맞이 다수 이용시설의 지속적인 가로환경 정비와 불법주정차 계도 · 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공원, 하천 일제 정비를 통해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며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중화산1동 전주병원, 추석맞이 라면 100박스 기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동장 김현도)은 3일 전주병원(이사장 최정웅)과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추석 명절 맞이 '사랑의 물품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중화산1동 전주병원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300만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하였으며, 기탁된 라면은 관내 복지기관과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병원 최정웅 이사장은 "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물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도 중화산1동장은 "매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온정의 손길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전달하여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병원은 매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수년째 이웃사랑 나눔을 활발히 펼쳐 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